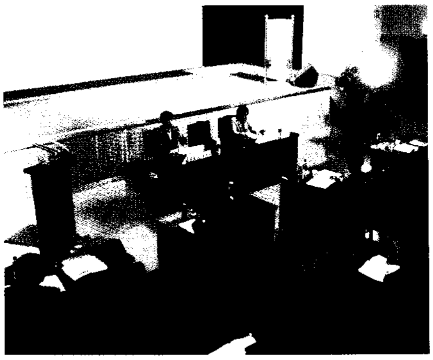
"증도가자, 직지보다 앞선 금속 활자 맞다"

남권희 교수, 위작활자 등 각종 의혹 반박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 활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를 공개한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과 교수가 반박에 나섰다.



증도가 활자를 공개한 남 교수는 지난 11월 5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서지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증도가자에 관련된 몇가지 검토'란 주제발표를 통해 증도가에 있는 같은 글자의 획 굵기나 모양,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1명의 각수(조각 기술자)가 동원돼 제작됐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증도가의 행간과 자간은 물론 글자의 서체도 서로 일치하는 글자가 1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기된 의혹을 인정한 뒤 "이는 현존본이 여러 각수가 동원돼 새긴 번각본(카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횡폭과 행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목판이 마르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면 나무가 틀어지거나 휘어지기도 하고 판각 후에도 같은 과정이 진행돼 전체적으로 수축되는 형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증도가 목판본과 금속활자의 서법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남 교수는 금속활자 '명(明)'자 중 '月' 부분이 목판본과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 "실물 활자에서는 아래쪽의 획이 외부충격 등으로 파손되면서 글자면 뿐 아니라 글자면을 지탱하는 몸체까지 손상을 입어 경사면으로 떨어져 나갔다"면서 "실물활자에 대한 진위를 판정하면서 실물확인도 하지 않은 채 파손된 부분을 획으로 간주하는 것은 올바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작활자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중치 못한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실물인 증도가자는 고려시대에 많이 쓰이는 구양순체풍을 보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위작활자는 고딕체에 가깝고 획의 시작과 끝의 굵기가 일정하다"며 "바닥면과 이어지는 글자 몸통의 각도가 60~70도지만, 위작활자는 수직에 가깝게 가파르다는 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논란이 되는 탄소연대 측정을 위해 지질자원연구원에 마음심(心)자를 비롯해 2개 활자의 측정을 의뢰해 분석 중이며 다음 주중 결론이 나오면 오는 19일 청주대에서 열리는 발표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난 9월 2일 서울 다보성 미술관이 소장한 고활자 12점이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13세기 초 고려 증도가를 찍어낼 때 사용한 활자라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다.

금속활자 12글자가 글자체 특성으로 볼 때 복각본 목판 인쇄물 증도가가 나오기 전에 있었다는 금속활자본 증도가를 찍어낼 때 사용한 활자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